

서울대 인문계 393점·자연계 395점 지원 가능

광주시교육청 2025 수능 정시 분석
의예과 전대 405점·조대 403점
지스트 387점·광주교대 356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재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 지원 가능 점수가 인문계열은 393점, 자연계열은 395점 내외로 예측된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진학협회)와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진학정보분석팀이 광주 지역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실재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광주지역 전체 응시자 수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수능 결시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11.3%였으며, 특히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응시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별 응시인원은 국어 1만264명(화법과작문 7253명·언어와 매체 3011명), 수학 1만164명(확률과통계 4897명·미적분 5091명·기하 17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교육청과 진학협회는 "올해 수능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됐으나,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고 총평했다.

국어와 수학 모두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가 131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종로학원이 주최한 실재점 결과 토대 2025 정시 합격가능선 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점이었다.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전년도(4.71%)에 비해 증가한 6.22%였으며, 1등급과 2등급 누적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언어와매체'의 경우 139점으로 전년도 150점보다 11점 낮아졌으며, 국어 '화법과작문'은 136점으로 전년도 146점보다 10점 하락했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 140점, 기하 139점, 확률과 통계 135점으로 전년도 수능보다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탐구는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이 66~77점, 과학탐구는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이 65~7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일부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다.

이처럼 전년도 수능에 비해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감소하면서 표준점수 최고점도 낮아져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졌다. 탐구 및 영어 점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희망 대학과 학과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진학협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정보분석팀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인문계열은 393점 내외, 자연계열은 39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와 연세대 인문계열은 387점 내외, 자연계열은 38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교육대 지원가능 점수는 356점 내외,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387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는 393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높은 점수컷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계열 의학·의예과 중 전남대는 405점, 조선대는 403점 내외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의예과를 제외한 전남대 자연계열은 치의학전문대학원(지역) 400점, 약학부(지역) 398점, 수의예과 396점, 전기공학과 375점, 간호학과(지역) 353점, 수학과 354점으로, 자연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미적분/기하) 지정 학과 341점, 수학 미지정(미적분·기하·확률과통계 모두 가능) 학과는 33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58점, 국어교육과 355점, 행정학과 347점, 경

영학부는 353점, 정치외교학과 340점, 국어국문학과 337점 등이며,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328점 내외로 예측된다.

조선대 자연계열은 치의예과(지역) 398점, 약학과(지역) 395점, 간호학과(지역) 350점 내외로 판단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자료와 배치기준점수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의한 것으로 수시 인원 발표 시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며 "배치기준점수는 표준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하고,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효리 정도를 판단,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오후 4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재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 수험생들의 정시모집 대입 지원을 위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정시모집 대입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18~23일(일요일 제외)에는 광주진로진학지원단 및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진학전문교사들이 '정시모집 대비 1대1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 민현기기자

조선대-신안군, '예술로 어울림' 프로젝트 성료

지역·대학 협력 신규 문화 모델 제시

조선대학교는 신안군이 함께한 '예술로 어울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예술로 어울림'은 문화 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문화 소외 지역에서 창의적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선대는 이 사업을 통해 섬 지역에서 수준 높은 예술 교육을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큰 만족을 안겨줬다.

또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생태 탐방, 연기, 음악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은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사들은 신안군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또 헌신적 노력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만족도와 지역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의 성과는 지난달 26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4 예술로 어울림 성과공유 포럼'을 통해 공유됐다. 조선대와 신안군의 사례는 대표 모범 사례로 선정돼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명규 조선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신안군과 같은 지역에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조선대와 신안군이 함께 추진한 '예술로 어울림' 프로젝트가 신안의 한 섬에서 진행됐다. 조선대 제공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